

国内消息

原子力 2 號機 初臨界 도달

原子力發電所 2호기가 4월 9일 하오 2시 35분 初臨界에 도달함으로써 드디어 점화가 되었다. 국내에서 세번째로 초임계에 도달한 시설 용량 65만kw의 이 2호기는 지난 77년 3월 원자로 건물 기초굴착 공사를 시작한지 약 6년 동안의 건설기간을 거쳐 지난 2월 26일 核燃料가 裝填된 이후 초임계전 試驗인 제어봉의 各種試驗, 원자로 제어 보호계통의 각종 설정치 確認試驗等 약 70여개 사항에 달하는 제동별 機能試驗을 마치고 초임계 도달에 성공한 것이다.

이로써 2호기는 앞으로 발전을 개시, 試驗送電인 제동병입(4월하순예정), 出力上昇試驗, 綜合性能試驗을 完了한後, 금년 8월말 본격적인 상업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原電 9 號機 最初 콘크리트 타설

지난해 10월 기공식을 가진 바있는 原子力 9·10號機 가운데 9號機의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이 지난 1월 26일 최초로 시작됨으로써 蔚珍原電建設工事は 본격적인 공정에 돌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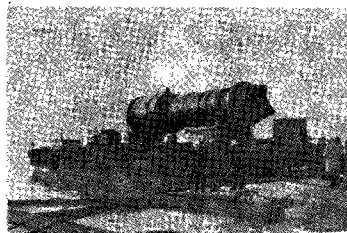
蔚珍原電建設事務所는 이날 最初

의 콘크리트타설식을 갖고 순조로운 공기진행을 기원하는 한편 9·10號機 공사가 原電建設의 이정표가 되도록 발전소 建設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原子力 6 號機 蒸氣發生器 運送完了

韓國電力公社는 原子力6號機의 重量物로서는 마기막인 316톤의 증기 발생기를 WH社로부터 인수, 지난 1월 25일부터 3일간에 걸쳐 창원에서부터 고리까지 安全輸送을 完了했다.

國內에서 최초로 開發한 沿岸海上輸送船積方法(자동부력조절장치 방식)을 適用하여 실시된 이번 輸送은 한국전용선(주) 소유의 東進號(3,000톤급, 국내제작)가 맡았는데, 이제까지 초중량물선적시엔 荷重때문에 자체부력장치가 完備된 外國의 최신형 부선을 빌려 사용하여 왔었다.



原子力産業 國産化 推進

동자부는 原子力産業의 國産化를 促進하기 위해 우리 實情에 맞는 原子力發電所모형을 마련, 오는 88년까지 표준설계도를 작성키로 했다.

동자부는 年內에 韓國電力技術(株)로 하여금 우리 실정에 맞는 原子力發電所의 炉型和 용량의 표준설계에 着手, 84년까지 기본설계를 마친 뒤 85년부터 88년까지 세부설계를 끝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본설계에 드는 비용은 모두 12억 4천 8백만원이다.

電力分野 技術혁신 推進

政府는 電力分野의 技術革新과 國際競爭力強化를 위해 1단계로 금년부터 오는 87년까지 5년간 약 5백억원을 들여 ◆原子力 ◆電力設備 ◆環境保存 및 新에너지 利用 ◆電力에 關聯된 諸般政策等 4個分野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方針이다. 연구개발비는 매년 1백억원씩 電力料金에서 떼어(약 0.3%) 5년간 5백억원을 조성할 방침이며 금년에는 약 5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政府는 이 재원으로 우선 原子力分野에서는 ◆原子力發電所의 독자적인 표준설계 ◆안전성·信賴度 向上 ◆放射性廢棄物 處理·處分 ◆核週期 技術 ◆新型炉의 研究開發 等を 추진할 방침이다.

**大韓電氣協會, 「電氣의 날」
記念式**

「전기의 날」기념식 및 電氣産業振興促進大會가 4월 11일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徐相喆 동자부장관과 金榮俊 대한전기협회장등 전기관계인사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大韓電氣協會 主催로 거행되었다.

徐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電氣産業의 國際競爭力을 強化하고 主要 機資材의 國産化 제고에 努力해 줄 것」을 促求했으며 金榮俊會長은 「90年代初까지에는 다시 1천만kw의 新規 電源을 開發함과 同時에 도약단계에 있는 電氣工業을 더욱 育成 發展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産業活動支援과 技術革新, 電氣施設의 效率的 運營을 통한 生産性 向上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採択했으며 有功 電氣人으로 朴旻鎬 서울工大교수에 게 銀塔산업훈장을, 金東熙 동아엔지니어링사장과 趙容驥신아전기공업대표 및 沈相禹전기공사협회 회장에 게 각각 銅塔산업훈장을 수여하는등 41명에게 포상을 하였다.

「電氣의 날」은 1900년 4월 10일 서울 종로에 민간전등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점화한것을 기념, 지난 60년대부터 제정, 시행되어오다가 중단된것으로 대한전기협회가 금년부터 자체행사로 부활, 기념식을 갖게된 것이다.

**現代重工業, ASME N
스탬프 更新**

現代重工業은 原子力發電 1次設備 시공자격으로 1980년 3월에 取得했던 ASME N 및 NPT 품질인정증의 規定滿期인 3년이 경과하여 재심사를 받은 결과 다시 3년간 更新하였다. 지난 2월 28일부터 6명의 심사팀이 현대중공업을 방문, 기술지원, 설계, 생산, QA등 각 부서의 시스템 흐름을 기술한 품질보증메뉴얼과 각종 기술 및 행정절차서를 기

준으로 하여, 수주에서부터 제품인도시까지의 모든 과정과 그에 따른 관련문서들의 추적성을 면밀히 조사, 엄격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그동안 수행해 온 原子力設備製作과 관련된 Code Work 이 ASME Code Section III의 요구사항에 正確히 부합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ASME N-Stamping이 요구되는 제품을 시공할 수 있다고 판정하였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N 및 NPT Stamping이 完了된 原子力部品을 공장조립할 수 있는 NA-Stamp를 추가 획득하여 原子力關聯 Stamp중에서 밸브, 펌프 및 콘크리트제품을 除外한 全Stamp를 確保하게 되었다.

**IAEA 사무총장
한스 브릭스박사 訪韓**

國際原子力機構(IAEA) 사무총장인 한스 브릭스박사가 李正五 과기처장관의 초청으로 4월 7일 내한하였다.

브릭스사무총장은 우리나라에 머무는 동안 韓國에너지研究所, 古里原子力發電所, 제주대학교부설 放射能利用研究所등을 視察하였으며 4월 8일 청와대로 전두환대통령을 예방, 이자리에서 修交勳章 文化章을 받았으며 13일 離韓하였다.

브릭스박사는 4월 8일 한국에너지연구소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韓國은 原子力發電所의 가동에 따른 安全性 確保研究에 많은 投資를 하여야 한다. 이는 原子力發電所의 安全性에 關한 研究는 하면 할수록 더 좋은 방안이 나올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韓國의 原子力發電프로그램이 広範圍하고 야심적인데 놀랐으며 짧은 研究期間에 비해 水準은 安全性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韓國의 原電發展이 매우 높은 단계에 와 있음을 알았다」고 하였다.

브릭스박사는 스웨덴 출신으로 81년 12월 1일 제 6대 IAEA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후 開發途上國에 대한 技術協力增進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어 이번 訪韓이 韓國과 IAEA

間의 技術協力增進에 매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프랑스 原子力産業界代表團
來韓**

프랑스 原子力産業會議는 우리나라 産業界와의 協力增進을 目的으로 3월 13일~19일까지 12명의 프랑스 原子力産業界 人士들로 구성된 代表團을 우리나라에 訪問하였다.

이 代表團은 滯韓期間동안 韓國原子力産業會議 金榮俊會長主催 午餐會에 參席하는 것을 비롯 韓國電力公社, 韓國에너지研究所, 韓國重工業 등을 방문하고 창원공업단지과 울산공업 단지를 돌아봤으며 關聯企業體들과 相互協力方案을 모색하는등 韓國과 프랑스 兩國間의 技術交流增進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韓·加 원자력양해각서
체결**

韓國과 캐나다간 原子力共同調整委員會 設置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가 4월 20일 李範錫 外務部長官과 장크레티앵 캐나다動力·鉦山·資源部長官 사이에 체결되었다.

이 각서는 캐나다의 重水型原子力城1號機原子力爐 도입을 계기로 지난 76년에 兩國이 체결한 「平和의 目的을 위한 原子力의 開發과 應用에 있어서의 協力을 위한 協定」의 施行을 위한 것이다.

**韓國에너지研究所, 센터 및
병원기구 일부개편**

韓國에너지研究所는 3월 30일 제 30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산하 原子力安全센터와 原子力病院의 機構를 일부 개편하였다.

原子力安全센터는 보다 效率的인 운영과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재의 8개전문위원실을 업무별로 통할하는 안전심사부, 안전검사부, 안전기준부로 개편하였으며, 原子力病院

은 앞으로 이 병원의 擴張에 대비하여 6개 연구실을 통괄하는 연구부외에 진료각과를 업무별로 分管하는 내과부, 외과부, 산부인과부, 방사선과부를 두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高允錫(서울대 自然科學大學長), 李炳暉(科技處 原子力常任委員) 이사를 연임시키고 林裕圭(科技處 原子力常任委員), 朴肯植(韓國動力資源研究所長), 李重鎬(韓電社長技術担当特別補佐役) 씨를 理事로 새로 선임하였다.

WH社, 核燃料기술세미나 開催

WH社는 現在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核燃料國産化開發計劃과 때를 같이하여 WH社의 核燃料設計, 製作技術 및 海外의 기술전수 經驗을 소개하기 위하여 3月 17, 18日

이틀동안 하얏트호텔에서 關聯機關과 기업체 인사 100여명이 參席한 가운데 PWR型 核燃料技術에 關한 세미나를 開催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WH社 核燃料事業本부의 D.

Haymon 海外事業理事等 豊富한 實務經驗을 갖고 있는 연사들의 講演이 있었다.

WH社는 우리나라의 核燃料國産化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參與를 希望하고 있다.

韓國에너지研究所, 原子力學術講演會 開催

韓國에너지研究所는 4月 21日 同研究所의 大德工學센터 강당에서 開所 24周年紀念 및 第 16回 科學의 날 行事의 일환으로 「原子力學術 강연회」를 가졌다.

韓國原子力學會의 후원으로 開催된 이번 學術講演會에서는 캐나다 原子力規制局(AECB) 委員長인 Jenekens 박사와 美國제너랄·아토믹社의 原子力部長인 Wittemore 박사의 特別講演이 있었으며, 韓國에너지研究所의 李相薰 安全기준전문위원, 全魯一 原子力政策研究室長 및 大德工學센터의 李元求 기술지원실장이 紀念講演을 하였다.

原電엔지니어링과 事業管理심포지엄 開催

韓國電力技術(株)와 스웨덴의 Asea-Atom社는 4月 13日부터 14日까

지 이틀동안 신라호텔에서 原子力發電所 엔지니어링과 事業管理 심포지엄을 開催하였다.

鄭根鎔韓國電力技術(株)社長과 Lars Halle Asea-Atom 사장 및 John Wingstrand 스웨덴대사등 觀衆인사 200여명이 參席한 가운데 開募된 이번 심포지엄은 原子力發電所 建設에 必須인 엔지니어링과 事業管理分野에서의 韓國과 스웨덴 兩國의 相互協力增進에 크게 기여하였다.

「第 16回 科學의 날」 紀念式

제 16회 과학의 날 紀念式이 4월 21日 金相浹국무총리, 李正五科技處長官을 비롯하여 4백여명의 科學技術界, 學界, 産業界 人士 등이 參席한 가운데 忠南大德研究團地내 한국표준연구소 강당에서 열렸다. 金相浹국무총리는 이날 치사에서 「선진조국의 창조를 이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우리 국민의 우수한 科學頭腦를 기반으로 과학기술의 革新的 발전을 이룩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국민은 科學技術을 이해하고 尊重하면서 合理, 能率, 創造의 과학정신을 日常生活에 活用하도록 보다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紀念式에서 大韓民國 과학기술 본상인 대통령상은 金丁龍 교수 등 4명이 수상했으며 40여명이 훈장과 포장을, 7명이 대통령표창을, 3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WH社 세미나 광경)

